



제2편 역사歷史

제2장 중세사 中世史

제1절 후백제(後百濟)와 고려시대(高麗時代)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의 공격으로 멸망한 백제의 장군들과 병졸들은 각 성에서 신라와 당군을 상대로 항전을 거듭하고 있었으니 일부 충신들이 일본에 가 있던 왕자 부여풍(扶餘豐)을 귀국시켜 주류성(周留城, 扶安郡 邊山에 있었음)을 근거지로 나당연합군을 상대로 3년간을 항전하는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비세에 몰린 고성 주류성은 663년(新羅 문무왕(文武王) 3년 癸亥) 9월에 함락되고, 부여풍은 고구려로 달아나 망명하였다. 이리하여 주류성 싸움을 마지막으로 백제 의병의 싸움은 끝나고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의 배를 불러 여기에 가족들을 태우고 일본으로 망명하여 일본 문화의 시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소성에서 나당연합군에 항쟁하는 백제 부흥세력이 있어 이것을 치고 수습하는데 10여년이 걸려 675년(文武王 15년 乙亥)에야 백제의 잔을 탈취하였다고 기록되었으니 백제 의병의 항쟁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記) 경덕왕 16년조(景德王 十六年條)에, 「完山州爲全州 領州一 小京一 郡十 縣三十一」(완산주를 '전주' 라하며 주는 하나, 군은 열, 현은 서른하나를 거느리게 한다.)



지리지(地理誌)에는 각 군과 영현(領縣)¹⁰⁴⁾의 명칭이 기록되었으나 우리 고을은 아래와 같다.

壁谿郡(伯伊 伯海縣) 領縣二 鎭安縣(鎭珍阿縣) 高澤縣(雨坪縣)

「벽계군(백이 백해현) 영현은 둘 진안현(난진아현) 고택현(우평현)」

백제를 멸망시키고 주군현(州郡縣)을 설치한 신라는 다시 당나라 군사들과 고구려를 항복시킴으로써 3국을 통일하였으나 고구려의 땅 90%를 당나라에 빼앗기고 수복하지 못했다. 고구려 정벌에 협력한다는 조건으로 백제 공략 때 외세(外勢)를 끌어 들여 결과적으로는 통일신라영토의 배나 되는 평양이북 요동까지의 고구려영토를 당(唐)에 내주어야 했기 때문에 신라의 3국 통일은 결과적으로 득(得)보다 실(失)이 더욱 많았던 것이다. 다음 왕조인 고려조에서 서쪽으로 압록강까지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수복하지만 북쪽 함경도쪽은 그보다 500년이 지난 조선(朝鮮) 세조대왕때에 가서야 실지(失地)를 회복하니 한 번 빼앗긴 땅을 다시 찾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아직도 못 찾은 첫 고구려의 영토인 요동 이동의 땅은 우리들의 세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숙명적인 유산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설치된 것이 있다면 계북면 원촌리에 설치된 완경원(翫景院)일 것이다. 완경원은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각처 공관에 전달되는 문서와 공물(貢物)을 수송하는 기관으로 세워졌으나 고려국이 창립되면서 역로(驛路)가 반대방향으로 바뀌는 바람에 없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조국 멸망으로 인한 백성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을 불교신앙으로 돌리기 위해서 신라의 순무책으로 세워진 사찰이 신광사(新光寺)와 장계면 삼봉리 탑동에 세워졌던 개안사(開眼寺)가 그것이다. 탑동에는 개안사에 세워졌던 사리탑 즉, 탑동 5층석탑(塔洞 五層石塔)이 남아 있으나 상층 2개층을 분실하여 지금은 3층만이 남아 있다.

767년(新羅 景德王 16년 丁酉) 12월에 벽계군(壁谿郡)의 명칭인 한자를 바꾸어 벽계군(碧溪郡)으로 되었으며 808년(新羅 哀莊王 9년 戊子) 2월에 군현(郡縣)의 경계가 설정되어 비로소 확실한 행정구역이 생겼다. 이것이 설정되기 전에는 씨족이나 부족의 추장이나 족장을 상대로 행정을 집행하였으나 씨족이나 부족사회가 전쟁에 시달리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유랑민이 많아짐에 따라 추장이나 족장의 통솔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자연히 관치행정이 필요해져서 취해지는 불가결한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가 행정적인 체제가 완비되는 시기라 할 것이다.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노획한 재산과 노비로 끌고 간 장정들을 부려 편안한 세월을 보내면서 사치와 향락을 탐닉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여 왕위 다툼과 권력다툼으로 국방이나 영토확장에는 관심이 없었다. 참고로 삼국유사(三國遺事) 제 49대 헌강대왕(憲康大王)편에 보면 「城中無一草屋 接角連牆 歌吹滿路 晝夜不絕」

(성중에는 한채의 초가집도 없으며 담장이 서로 연결하였으며 노래 부르는 소리 거리에 가득하여 밤과 낮을 그치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향락에만 빠져있을 때에는 반대로 원성도 그만큼 높았을 것이다.

상주에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난 후 신라의 비장(裨將)으로 있다가 무진주(武珍州)의 무관으로 근무하던 견훤(甄萱)은 주(州)의 도독(都督)을 죽이고 백제의 유민을 선동하여 백제를 재건할 것을 종용하여 무진주(全南일대를 관장함) 석권하고 남원소경(南原小京)과 완산주(完山州)를 차례로 점령하기에 이르러 완산에 도읍을 정하고 892년(眞聖女王 6년 壬子)에 국호를 후백제(後百濟)라 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신라 조정에서는 이것을 토벌할 힘이 없었으므로 토벌군도 파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벼슬을 높여주고 무마하려 하였다. 견훤의 진격은 신속하였으며 무방비 상태의 옛 백제의 땅을 완전히 수복하고 오히려 신라를 잠식하기 시작하였다.

901년(新羅孝恭王 5년 辛酉)에 궁예(弓裔)는 후고구려(後高句麗)를 건국하여 철원(鐵原)에 도읍하고 한창 흥왕하는 견훤을 공략하기 위하여 장군 왕건(王建)을 시켜 수군을 이용하여 금성(錦城 현 羅州 榮山浦)을 습격하여 견훤의 세력을 견제하였다. 만일 궁예의 견제가 없었다면 견훤은 일거에 신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견훤의 후백제 건국으로 우리고장 장수는 다시 후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백제망국 후 230년간의 신라통치에서 벗어났으며, 후백제군은 신라를 정벌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901년에는 대야성(大郞城 지금의 陝川)의 서쪽을 완전히 점령하고 907년(新羅 孝恭王 11년 壬戌)에는 일선군(一善郡 현 善山郡) 이남의 10여성을 점령하게 되었으니 백제 유민들의 망국의 원한은 불길처럼 타올라 파죽지세로 신라로 밀려들었다. 견훤은 금성에 진을 치고 있는 후고구려의 왕건군을 의식해서인지 전진을 멈추고 뒤돌아가 후고구려군과 싸움이 시작되었다.

918년(견훤 18년 신라 경명왕(景明王) 2년) 왕건(王建)이 고려국(高麗國)을 창건하고 태조(太祖)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니 사세가 더욱 달라져 버렸

다.

927년(甄萱 36년 高麗 太祖 10년 丁亥) 후백제군은 신라의 서울 경주에 진격하여 포석정(鮑石亭)에서 궁녀들과 연락(宴樂)에 도취된 경애왕(景哀王)을 잡아 자결하게 하고 경순왕(敬順王)을 세운 후 후퇴하여 고려군과 승패를 겨루는 전쟁으로 돌입하였다.

견훤의 장자(長子) 신검(神劍)이 부왕 견훤을 금산사(金山寺)에 감금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 태조에게 투항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고려 태조 왕건은 후백제 정벌에 나서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신검(神劍)을 쳐부수고 사로잡아 죽이니 후백제도 935년(高麗太祖 18년 乙未)에 종말을 고하였다. 후백제가 망하는 것을 목격한 신라의 경순왕(敬順王)이 고려에 항복하고 서인이 됨으로 명실상부한 통일이 완성되었다. 고려 태조는 삼국을 통일하고 이듬해인 936년(高麗太祖 19년 丙申)부터 정계(政誡) 1권, 계백료서(誡百僚書) 8권을 반포(頒布)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내치에 힘써 국내가 숙연하게 성세를 구가하였다. 940년(高麗太祖 23년 庚子) 3월 주부군현(州府郡縣)명을 고치고 고려왕조의 행정체제가 완성되었다. 물론 우리 고장의 현명도 바뀌었는데 고택현(高澤縣)을 장천현(長川縣)으로, 벽계군(碧溪郡)을 장계현(長溪縣)으로 바꾸고 남원부(南原府)를 설치하여 남원부의 영속(領屬)으로 두었으며 강남도(江南道 현 全北 一圓)에 절도사(節度使)를 두어 이의 통치하에 두었으니 처음으로 현재에 이르는 각도(各道)의 제도가 생겼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지방색의 근원이 되었다. 고려는 국교를 불교(佛敎)로 정하고 숭불(崇佛)정책으로 시종하여 가장 흥왕한 것이 불교사찰(佛敎寺刹)이었다. 장수읍 대성리 필덕마을 서편에 자리잡은 팔성사(八聖寺)에는 7암자(庵子)가 있었다니 지금은 암자의 이름조차 전해오지 않고 있으나 산서면 마하리 원흥마을에 있는 원흥사(元興寺)가 당시의 그 암자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으며, 여기 보존된 원흥석불(元興石佛)은 백제 조각 양식으로 제작년대는 알 수 없으나 삼국말기나 신라통일시대로 보면 착오가 없을 것이다. 원흥사는 당초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나 석불을 모시고 창설되었으며 조선 초기에 폐사되어 있다가 근래에 다시 복원되어 원흥사로 불리고 있다. 석불만은 국보적인 가치가 있으니 충실히 보존하여 후세에 전해져야 할 것이다.

장수땅에 부족국가를 형성하였던 황씨들이 백제와 신라의 국경싸움에서 피해를 입어 이산하기 시작하여 각처로 흩어져 고려조에서 벼슬하며 살았으

나 전중감(殿中監)의 벼슬에 있던 황공유(黃公有)는 1170년(高麗 의종〈毅宗〉 24년 庚寅) 정중부(鄭仲夫), 이의방(李義方) 등이 흉모를 꾸며 내란을 일으키려는 조짐이 보이자 관직을 사직하고 옛 고향땅인 장수로 돌아왔으나 의종임금을 몰아내고 집권한 정중부, 이의방이 황공유에게 장수고을의 수령에 취임할 것을 강요하게 되자 다시 장수고을을 등지고 남원땅으로 도망가 숨었다는 기록이 장수황씨 세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황씨 씨족국가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고증문서가 될 것이다.¹⁰⁵⁾

105) 황희상공편 참조

삼한시대부터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와 살인과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倭寇)들은 고려시대에는 더욱 격심하여 해변일대는 생활에 지장이 막심하여 고려조정에서는 해변의 백성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산간벽지로 보냈다. 따라서 당시의 장수는 해변등지에서 이주해 오는 피난민으로 각광을 받았다. 장수가 피난지여서 피난하러 들어왔다는 선조들이 대부분이며 왜구의 피해에서 벗어나려는 내륙 이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全羅楊廣 濱海一帶 蕭然一空」(전라도 충청도 해변일대가 소연하게 하나 같이 비어 버렸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의 긴박한 사정을 알만도 하다. 1380년(우왕(耦王) 6년 庚申) 고려조정에서는 나세(羅世)를 원수(元帥)로, 최무선(崔茂宣)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왜구토벌을 명령하였다. 전함을 이끌고 서해안을 내려오던 중 초계정의 보고에 의하면 왜구의 배 500척이 금강하구를 통하여 상류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보고였다. 나세 원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금강상류로 올라가면서 때마침 최무선 부원수가 발명하여 실용화한 화통, 화포(火炮)를 시험하는 절호의 기회여서 왜구의 배를 만나는 데로 격침하고 불태웠으니 왜구 침입의 역사상 가장 통쾌한 승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왜구는 흩어질 수 없는 금강의 외줄기 강물에서 나세 장군의 전함에 설치된 화통과 화포의 밥이 되기는 하였으나 수전에서 불리함을 깨달은 왜구는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떼지어 살인과 겁간 약탈 방화를 일삼으니 금시에 양광도(楊廣道 현忠淸道)의 논산(論山), 공주(公州)를 쑥대밭을 만들고 나세 원수와 최무선 부원수의 추격을 피하여 내륙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 연기, 보은, 청주를 차례로 유린하고 경상도로 들어가 상주(尙州)를 불사르고 다시 이동하여 전주(善州 지금의 善山)를 불태우는 행패를 저질렀다. 조정에서는 왜구의 내륙지방의 횡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성계(李成桂)를 원수(元帥)로 삼아 왜구를 토벌하게 하였다. 문경 새재를 넘어

들어닥친 이성계 원수군을 대적하지 못한 왜구는 머리를 서쪽으로 돌려 김천(金泉), 영동(永同), 무주(茂朱)를 거쳐 장수(長水)로 들어와 한참 분탕질을 치다 고려군의 추격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여 이성계 원수는 왜구를 추격하는 도중에 장천현 신내면 용계리에서 말과 군사를 쉬게 하고 머물렀다. 군령으로 계명(鷄鳴)에 출발하게 하였는데 초저녁에 닭이 활개를 치고 울었다.

이성계 원수는 군사를 이끌고 출발하여 번암면 사현(沙峴 사치재, 현 고속도로 넘어감)을 넘어 황산벌(荒山坪)에서 왜구를 포착하고 격전이 벌어졌다. 왜구의 괴수 아지발도(阿只拔都)는 용맹하고 무예가 출중하여 화살로서 죽일 수가 없었으나 이성계 원수의 기지로 이것을 사살하는데 이성계 원수가 아지발도의 투구를 쏘아 뒤로 넘어가니 적의 괴수가 입을 벌려 투구가 못 넘어가게 하는 동안 이두란(李豆蘭)장군이 아지발도의 입을 쏘아 넘어뜨리고 일제히 진격하여 왜구를 섬멸하고 지리산(智異山)으로 들어가려는 왜구를 소탕하였으니 실로 위기일발의 찰라에 후환을 없애게 되었으니 장수읍 용계리에서 들은 닭우는 소리는 용의 계시에 의하여 울었다 하여 그 지명을 용계(龍啓)라 하였으나 후에 용계(龍鷄)로 바뀌었다 한다.

남원시 운봉읍에 있는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는 당시 이성계 원수의 왜구를 섬멸한 공로를 찬양하는 비석이며 이 대첩이 장수의 용계로 말미암아 거둔 대승리이며 만일 왜구가 지리산으로 숨어 들었다면 그 후에 어떠한 전란이 닥쳐왔을 것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구는 삼한시대부터 시작하여 조선초까지 3천여회를 침범하였다니 왜놈들의 침략근성은 몇천년전부터 시작된 섬사람 근성이라 판단된다.

1346년(고려 충목왕 2년 병술) 고려조의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의 벼슬에 오른 이림간(李林幹) 선생이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 초장(草莊)을 하사받고 장천군(長川君)에 봉군되면서 관직을 사임하고 초장에 내려와 여생을 마치니 바로 이 자손들이 장천이씨(長川李氏)의 가문이 되어 장수를 관향으로 하는 이씨와 황씨가 있게 되었으니 두 가문에서 다같이 정승을 배출하는 명문이어서 더욱 장수가 빛나는 것이다.

고려 말엽에 커다란 사건이라면 방촌(厓村) 황희(黃喜)상공의 아버지 되시는 황군서(黃君瑞)공이 1361년(高麗 공민왕(恭愍王) 10년 元順帝 21년 辛丑)에 장천현감(長川縣監)으로 부임하였으며 따라서 장안산 황정골에서 산신제를 올리고 얻은 옥동자가 방촌 황희 상공이었으니 바로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구 장천현의 내아자리였으니 우리 고장에서 불세출의 명재상이 탄생되는

것이다.

황군서공은 여러 벼슬자리를 거쳐 강릉부사(江陵府使)까지 승진하였으며 방촌선생이 탄생하신 옛터는 현재는 논으로 변하여 5백년 고려 장천현의 영화는 찾아볼 길이 막연하다.

고려 5백년을 통하여 백제땅 출신의 인물등용을 막아 이 지방 사람은 등용하지 않았으므로 양반계급은 연고를 따라 이주하였고 고려시대의 장수땅은 고려국의 유배지로 사용하여 유배당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되고 따라서 당당한 가문들이 이 지방을 차지하여 일종의 불우한 양반계급의 피신지가 되었다.

고려가 망한 후 이씨조선이 창업되고서도 구습을 버리지 않아 여기 유배된 특수계급이 정착하면서 장수땅은 더욱 선비나 학자의 집단적인 거주지로 변모하면서 충절의 고장으로, 의리의 고장으로 확립되는 것이다.

제 2절 조선시대(朝鮮時代)

고려후기의 중국(中國)의 정치적 변동은 고려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 고려의 중신(重臣)중에도 친원파(親元派)와 친명파(親明派)가 병립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1368년(高麗 恭愍王 17년 戊申) 당시의 원나라 오왕(吳王) 주원장(朱元璋)이 남경(南京)에서 국호를 명(明)이라 칭하고 황제(皇帝)에 즉위함으로써 원나라와 내전이 발생하고 쇠퇴한 원나라 황제가 북쪽으로 후퇴하면서 중국대륙의 판도가 바뀌어지면서 원나라와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수구파 중신들과 친명정책을 내걸고 전제개혁(田制改革)을 단행하여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반 서민에게 환심을 얻은 신흥 무장세력간에 암투로 변하여 극히 혼란하고 착잡한 시기가 오래 지속되었다.

이때 출현한 사람이 이성계(李成桂)인데 그는 여진땅에서 태어나 그의 부친 이자춘(李子春)과 같이 공민왕의 북강회복(北疆回復) 정책에 협조하여 무공을 세우고, 장군으로 발탁되어 여진족 격퇴, 왜구격멸 등으로 공로가 많아 고려국의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가 되어 요동공략의 대임을 맡아 위화도(威化島)에 출진하였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 최영(崔瑩)장군을 죽이고 권좌에 올라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가



되어 국정을 주관하면서 우왕(耦王)을 폐위하고 다시 그의 아들 창왕(昌王)까지 폐위하면서 공양왕(恭讓王)을 세워서 마음대로 자신의 세력을 부식하고 고려왕조를 지키려는 충신들은 모조리 처치하면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여기 최대의 혁명적 사건은 고려조에서 국교로 삼았던 불교(佛敎)를 배척하고 유교(儒敎)를 숭앙하는 정책으로서 유림들의 환심을 얻은 것과, 전제개혁(田制改革)으로 고려의 공신(功臣)들에게 내려진 전국의 수많은 토지를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환심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다.

고려말기부터 타락한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한 유생들이 이씨조선 창업과 더불어 유도중심의 도의교육(道義敎育), 도의정치(道義政治)를 표방한 이씨왕조에 전폭적인 성원을 보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치주의(文治主義)이념에 투철한 유림들의 왕도정치에 고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세련된 학자들이 배출되면서 조선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씨왕조는 역성혁명으로 인한 불안감과 고려조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을 가진 많은 신하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하기에 이르러 민심이 극도로 이반하였음을 깨달아 개성의 부조현(不朝峴)과 광덕산(光德山)의 두문동(杜門洞)에 숨어서 수절하는 구조의 명관이나 충신들에게 신왕조에 출사할 것을 권하러 이성계 태조의 사신이 몇차례 왕복하였으나 모두 고개를 흔들어 거절하고, 협상이 성립되어 두문동을 나온 분은 명재상 방촌(龐村) 황희(黃喜)상공 한분에 불과하였으니 이분이 바로 조선 초기의 왕조 체계를 확립하는데 공헌하여 이씨왕조의 인문정치(人文政治)의 확립이라 할 것이다.

특기할 것은 이때 고려조에서 이부전서(吏部典書), 보문각 대제학(寶文閣大提學)으로 계시면서 명관의 명망이 높았던 정신재(靜愼齋) 백장(白莊)선생이 태조와 태종의 부름을 거역하다 노여움을 사서 장수현 임내면 호덕동(長水縣 任內面 虎德洞)으로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게 되면서부터 장수땅에 커다란 변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 이 왕조에서 이조판서(吏曹判書)의 요직에 계시다가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폐세자 논의에 반대하여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장수현 임내면 도지촌(陶旨村)에 유배되어 오신 방촌 황희상공이 있었으니 방촌 선생께서는 이웃마을이나 다름없는 호덕동에 귀양살이 하시는 정신재 선생을 조석으로 찾아서 국가대사와 학문에 대하여 토론하고 연구하여 경륜을 넓혔으며 전조의

선배이신 백장선생을 스승과 같이 모셨음이 정신재선생 묘갈명에서 방촌 선생 자신의 글로서 술회하고 있다.¹⁰⁶⁾

정신재 선생과 황방촌 선생이 유배생활을 하시는 임내면 일대는 당시 각 처에서 책을 짚어지고 모여드는 학자들이 수없이 많았으며 여기 모여드는 학자들이 전라좌도인맥(全羅左道人脈)을 형성하여 전라도를 학문의 도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재 백장선생의 손녀서(孫女婿) 세종조에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내다 세조(世祖)의 등극을 보고 퇴직한 퇴휴재(退休齋) 송보산(松寶山) 선생과 같은 집안의 동서지간으로 동조(同朝)에서 이조판서(吏曹判書)로 퇴직한 손재(遜齋) 김남택(金南澤) 선생이, 정신재 선생이 유배된 장수땅으로 낙향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며 정신재 선생과 퇴휴재 손재 세 선생은 계남면 침령에 세워진 청심정(淸心亭)에서 여생을 즐기며 소요하였다는 기록은 장차 장수땅에 문화의 꽃이 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퇴휴재 선생께서는 당시 이미 낙향하여 살던 동서 손재 선생과 같이 장수현 임남면 침령(砦嶺)마을에 새터를 잡아 정착하셨으니 여기서 뇌계 유희인(俞好仁) 선생을 발탁하여 이 분이 후에 성종문장삼절(成宗文章三絕)로서 유명하신 문장으로 발전하고, 손재 선생의 손녀서로 강원감사(江原監司)를 지내다 연산주(燕山主)의 횡포를 피하여 사직하고 임남면 기산(箕山)마을로 낙향하여 장수유학에 커다란 획을 그은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 선생 등이 우리 고을 유학의 대선배이며 향선생으로서 우리 장수의 인맥과 문맥을 아울러 창조하였던 것이다.

1468년(世祖 14년 戊子)에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山西面 五山里)에서 출생한 조양인(兆陽人)으로 국헌(菊軒) 임옥산(林玉山)이 과거에 급제하여 내직에 있을때 고향에 계신 부모가 병환에 시달리심을 전해들어 성종(成宗)에게 상소를 올려 부모봉양을 간청하여 장수현감(長水縣監)으로 부임하는 최초의 장수인이 되었으니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하여 어머니의 병환에 비둘기가 특효라고 하여 비둘기가 날아와 도포속으로 떨어졌다 하여 구락리(鳩落里 현 長水邑九洛里)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으며 현청에서 근무하고 산서면 오산리까지 효성을 지극히 여겨 호랑이가 나와서 등에 업고 다녔다는 관청암(官廳岩)이 생겼으니 효도의 극치라 할 것이다.

1392년(朝鮮 太祖 1년 壬申)에 이성계(李成桂) 태조대왕은 각도의 안렴사(按廉使)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를 각수령(各守令)의 고과(考課)의 기준으

로 삼을 것이니 각군에 향교(鄕校)를 세워 후학교육의 전당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여 전국에 향교가 설립되었으니 우리 장수군에도 장수읍 선창리 당곡(長水邑 先昌里 堂谷)에 향교의 설립을 시작하여 15년이 지난 1407년(太宗 3년 丁亥)에 완공되어 명실공히 장수의 향학으로서 구실하게 되었다.

그후 장수현이 선창리에서 현재의 장수읍 장수리로 이전됨에 따라 장수향교도 이전하기에 이르렀으니 현청이 옮겨진 때는 세종년대 즉 1419 ~ 1450년이며 향교가 옮겨진 연대는 1685년 ~ 1686년에 실행되었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왕조가 망하고 이씨왕조에서 배불숭유(排佛崇儒)의 정책에 따라 자연히 사찰이 폐쇄되기 시작하고 고려조때의 교육기관이 없어지면서 태학 즉 성균관(成均館)과 향학인 향교(鄕校)의 전성기를 맞았으나 권문가나 양반계층의 사학(私學)에 더욱 훌륭한 훈장을 모시는 풍조가 생기면서 자연 관주도의 향학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각 학파의 유명한 훈장들의 사학으로의 취학이 일반화되면서 다시 교육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1542년(中宗 36년 辛丑)에 풍기군수(豊基郡守)로 주세붕(周世鵬) 선생이 부임하면서 죽계(竹溪)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설립하였으니 여기는 바로 고려조의 명유(名儒)이신 안유(安裕) 선생의 유허지였으니 안유 선생의 사당(祠堂)을 세우고 정내에 재실(齋室)을 지어 유생들의 독서(讀書)와 강론(講論)의 편의를 도와 교육의 기능을 병행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그 후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이 풍기군수로 임명되어 더욱 서원의 발전과 권위가 생겼으며 서원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조와 사액(賜額)을 요청하였던 바 1550년(明宗 5년 庚戌)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란 사액과 노비(奴婢) 전결(田結)의 하사를 받았으니 이것이 서원설립의 시초가 되며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는 것이다.

서원은 선조 또는 선현(先賢)을 봉사하는 사당(祠堂)과 자제와 유생을 교육하는 재실(齋室)을 결합시켜 더욱 권위 있는 학당으로 만든 것으로 선현 숭배로 교육효과를 드높인 것으로 매우 적절한 효과적 방법이었으니 급속도로 전국으로 전파되어 명종(明宗)년대에 설립된 것이 29서원, 선조(宣祖)년대에 124서원이 설립되어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숙종(肅宗)년대에는 각도에 8~90 여개 서원을 헤아릴 정도였다.

숫자상의 증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서원은 일종의 특권적인 것으로 변하여 서원에 소속된 전답에 대하여서는 조세(租稅)의 면탈을 받았고, 심지어

원노(院奴)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하게 되어 있었으며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악폐가 심하게 되었으니 숭유(崇儒)정책의 폐단이 되었다.

유생들은 향교보다 서원쪽을 택하여 오히려 유락 탐식하면서 중앙정부의 당론(黨論)에 편승하여 봉당(朋黨)으로 그 행동대원이 되어 사색당쟁(四色黨爭)의 선동대가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생들이 작당하여 서민이나 양민이 치부한 사람을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재물을 토색질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관장들은 이것을 눈감아주어 방조하는 형편에 이른 것이다. 서원의 이러한 악폐가 심해지자 자연 비판의소리가 높아졌다.

숭유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서원설립이 장수땅이라고 뒤질 수 없는 것 이어서 1695년(肅宗 21년 乙亥)에 장수군 선창리에 창계서원(滄溪書院)이 설립되어 방촌 황희선생을 주벽으로 열성공 황수신(黃守身) 선생 뇌계 유호인(俞好仁) 선생 송탄 장응두(張應斗) 선생을 배향하였으며 뒤에 무명재(無名齋) 강백진(康伯珍) 선생을 추배하였다가 창계서원의 설립을 필두로 1789년(正祖 13년 乙酉)에 장수군 산서면 학선리에 압계사(鴨溪祠)가 설립되었으며 여기는 덕곡(德谷) 육려(陸麗)선생, 국헌(菊軒) 임옥산(林玉山)선생, 비암(秘岩) 박이항(朴以恒) 선생, 삼암(三巖) 박이겸(朴以謙) 선생, 고산(孤山) 전설(全潑) 선생 등 5위의 선현(先賢)을 배향하였다.

다음에는 1815년(純祖 15년 乙亥)에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서변마을에 도암사(道巖祠)를 설립하여 도암(陶巖) 이경광(李綱光), 분사 이성구(李聖求), 강고(江皐) 유심춘(柳尋春) 선생을 모셨으며 1818년(純祖 18년 戊寅)에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장항마을에 용암사(龍巖祠)가 설립되어 천곡(泉谷) 안성(安省), 양심헌(養心軒) 양성린(梁聖麟), 화음(華陰) 김영갑(金永甲), 수우당(守愚堂) 한인기(韓仁箕) 선생을 배향하여 선현들의 덕망을 흠모하였다.

1847년(憲宗 13년 丁未)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에 사동사(社洞祠)를 세워 동창(東窓) 김준손(金駿孫), 매헌(梅軒) 김기손(金驥孫), 탁영(濯纓) 김일손(金驥孫),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 도연정(道淵亭) 김치삼(金致三) 만회당(晩悔堂) 김정택(金挺澤) 선생 등 6현을 모시친 그 유덕을 숭앙하였다.

1961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화산마을에 화산사(華山祠)를 세우고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 놀재(請齋) 박상(朴祥), 충암(沖庵) 김정(金淨), 안재(安齋) 박지견(朴枝堅), 사암(思庵) 박순(朴淳), 육류정(六柳亭) 박지효(朴之孝) 선생의 6현을 모셔 우리들의 향선생으로 흠모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많은 서원향사(書院鄉祠)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이것이 학파로

이어지고 학파의 연원(淵源)을 따라서 당파로 이어지면서 사색당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려말엽의 불교배척과 같은 조선말엽의 유교배척의 소리도 높아지기만 하였다.

사색당쟁(四色黨爭)이란 무엇인가. 1575년(宣祖 8년 乙亥) 7월 김효원(金孝元)을 추종하는 관료들과 심의겸(沈義謙)을 편드는 관료들이 서로 당파를 만들어 논쟁을 시작하여 당론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자 김효원의 집이 동건천(東乾川)에 있다고 하여 동인(東人)으로 칭하고, 심의겸의 집이 서정릉방(西貞陵坊)에 있다고 해서 서인(西人)이라 칭하였던 것이 시초가 되어 당쟁이 시작되며 이것이 장기화되자 서로 감정의 누증과 격렬한 투쟁으로 변하여 죽이고 죽는 싸움으로까지 변하게 되는 것이다.

동인쪽은 남인(南人) 북인(北人)으로 갈려서 다시 탁남(濁南) 청남(淸南)으로 분류되며, 북인쪽은 대북(大北) 소북(小北)으로 다시 대북쪽에서 골북(骨北) 육북(肉北) 중북(中北)으로 갈라졌으며 소북쪽에서 유당(柳黨) 남당(南黨)으로 갈라져 한계파의 파당을 만들었다.

서인쪽에서는 훈서(勳西) 청서(淸西)로 다시 신서(申西) 윤서(尹西)로 원당(原黨) 낙당(洛黨) 산당(山黨) 한당(漢黨)으로 갈렸다가 후에 노론(老論) 소론(少論)으로 대별되어 각기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조선말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영조(英祖) 임금에 이르러 당쟁의 해독이 참담함을 깊이 느껴 당쟁을 없애기 위하여 탕평책(蕩平策)을 써서 불편부당하여 세력균형을 위하여 각 파에서 균등하게 등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쟁을 근절하지 못했다.

이 태조의 건국 이래 100년이 경과한 성종(成宗) 연대까지는 왕조의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제법 안정된 속에서 평화와 안락을 누리며 무사안일한 사회가 형성되었으나 그러는 중에도 정체(停滯)현상이 싹트기 시작하여 성종 임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주(燕山主)때부터 봉당(朋黨)의 권력적 알력(軋轢)이 일어나 다수의 사류(士類)가 일시에 희생되는 참변이 생기면서 이것을 사화(士禍)라 일컬으며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이씨조선 역사의 치부가 되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연달은 것이다.

1498년(燕山君 4년 戊午) 성종실록을 편찬하면서 그 사초의 일부를 문제삼아 사건이 발단되었지만 그 발단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반감과 반목으로 기인되었다.

고려의 수절신으로 선산(善山)에서 숨어 살면서 후세교육에 전념하시던

야은(冶隱) 길재(吉再) 선생의 문하에서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으며 그중에 밀양(密陽)사람 김종직(金宗直) 선생을 비롯하여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성종 년대에 뚜렷한 일개학파를 형성하였으니 이름하여 사림파(士林派)라 하여 성리학(性理學)을 위주로 신진예기로 진보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유교 전래의 도의정치를 표방하였으나 그때까지 권력의 핵심을 쥐고 있던 훈신들은 세조(世祖)의 충신들이 대부분인 권신들과 그들에게 연맥되는 관료들로 뭉쳐있는 구신들은 그때까지 지켜온 기득권을 도전받는 것이 못마땅하여 사림파를 적대시하여 서로 상대방을 비방 배척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훈구파(勳舊派)의 중진 유자광(柳子光)과 이극돈(李克墩)은 두 사람이 전부터 사림파(士林派) 김종직 선생의 파벌을 증오하는 마음이 같았음으로 공통된 행동을 취하여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 무오사화가 되며 사실은 사소한 일로써 유자광은 경남 함양군을 유람하면서 시(詩)를 지어 학사루(學士樓)에 현판으로 걸어 놓은 것을 김종직선생이 함양군수로 부임하여 현판을 떼어낸 것에 대한 분풀이였으며 이극돈은 전라감사 재직 시 직권남용(職權濫用)의 혐의가 있음을 사초에 김일손(金驥孫)이 직필하였다 하여 사제지간인 김종직선생과 김일손선생을 모함하여 김종직의 묘를 파서 시체의 목을 베는 불상사가 있었으며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 등을 「파당을 만들어 선왕을 무록(誣錄)하였다」하여 사형에 처하고 정여창(鄭汝昌), 김굉필(金宏弼), 표연말(表沿沫), 강백진(康伯珍)등 30명을 장류(杖流)시켜 유배지에서 죽게 하였으니 그중의 한분인 무명재(無名齋) 강백진(康伯珍)선생은 우리 장수군의 정통적 상징인 장수읍 선창리에 설립된 창계서원(滄溪書院)에 배향하여 우리들의 향선생으로 모시는 어른으로 사화의 첫번째 희생되신 어른이시다.

무오사화(戊午士禍)라고도 하는 변이 지난지 6년 1504년(燕山君 10년 甲子)에 사화의 제2의 파도가 밀어 닥쳐 윤필상(尹弼商), 이극균(李克均), 성준(成俊), 이세좌(李世佐), 권주(權柱), 김굉필(金宏弼), 이주(李胄) 등 수십명을 죽이고 한명회, 정여창(鄭汝昌) 등 8명이 이미 작고한 전조의 훈신들의 묘를 파서 시체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剖棺斬屍)의 형을 내리는 비참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1506년(燕山君 12년 丙寅) 3화를 거쳐서 동년 연산군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중종(中宗)이 등극하고도 또다시 1519년(中宗 14년 己卯) 피비린내 나는 사화가 일어났으니 기묘사화(己卯士禍)라 한다.

연산군의 허다한 폭정과 사림파 선비들의 잇단 주살로 말미암아 조정에는 사류(士類)의 흔적을 볼 수 없는 정도가 되자 파직되어 낙향하여 한거중인 전 이조참판 성희안(成希顔), 전 지중 추부사 박원종(朴元宗), 이조판서 유순정(柳順汀) 등이 합의 꾀기하여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晋城大君) 탁을 추대하여 왕위에 모시게 되었으니 바로 중종 임금이 되시며 이와 같은 변혁을 중종반정(中宗反正)이라 한다.

중종임금은 연산군때 피화한 인물들을 신원(伸冤)하여주고 유교를 진작하였으며 사류학자를 등용하여 실추된 사림(士林)의 의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때에 중용된 분이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이며 선생은 사림파의 대표적인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선생의 제자인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선생의 제자로 그 학통을 이은 청년학자로서 오로지 정주학(程朱學)의 연구와 실천으로 사류의 추앙을 받은 인물이며 유교로서 정치의 근본을 삼아 왕도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현량과(賢良科)를 두어 인물을 발탁하여 김식(金湜), 안처근(安處謹), 김정(金淨), 박상(朴祥) 등 많은 학자를 발탁하여 도의정치(道義政治)를 실천하여 큰 성과를 올렸으며 전국 팔도에 여씨향약(呂氏鄉約)을 실천하게 하여 향촌에 마저 상호규제 상호부조 등으로 전국이 숙연하게 하였다.

사림파의 득세로 궁지에 몰린 훈구파의 구신인 남곤(南袞),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 등이 중종임금에게 「조광조 등이 괴이한 말을 일삼고 조정을 교란하는 봉당을 만들었으니 죄를 다스림이 마땅하다」고 고하여 중종임금은 사림파의 너무나 도학적인 언행에 염증을 느꼈음인지 사림파의 관원들을 금포하여 죽이고 유배하기에 이르러 조광조, 이서, 유인숙(柳仁淑), 박세희(朴世熹), 홍언필(洪彦弼), 김정(金淨), 기준(奇遵), 김식(金熈) 등이 사사(賜死) 또는 형사(刑死)하였으며 유배된 관원과 선비가 수십명에 이르렀다.

이 사화에 우리 고장에서 출생하신 선현(先賢) 송탄(松灘) 장응두(張應斗) 선생께서도 연루되어 전라도 승주군(昇州郡)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별세하였으며 장수유림은 선생의 유해를 운구하여 천천면 남양리 후록인 독장산록에 안장하여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으며 장수읍 선창리에 설립한 창계서원(滄溪書院)에 배향하여 선생의 유덕을 흠모하고 있다.

이때에 누명을 쓰고 사화에 희생되신 어른들은 뒤에 모두 신원되었으며 송탄 선생은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송탄마을에서 태어나셨으며 따라서 뒤에 이 마을의 이름을 송탄이라 부르게 되었고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의 이름도

송탄(松灘)이라 부르게 되었다. 기묘사화(己卯士禍)에 희생된 사람들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 불러 수백년간을 변하지 않는다.

중종임금이 재위 39년만에 승하하시고 그의 세자 고가 왕위에 오르니 바로 인종(仁宗)임금이며 즉위하면서 사림의 명사인 유관(柳灌), 이언주, 유인숙(柳仁淑)등을 기용하여 사림들도 정권에 참여하는 기운이 생겼으며 다시 도의정치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인종임금이 8개월만에 붕어하시고 즉위한 임금이 명종(明宗)임금이니 불과 12세의 소년으로 그의 모후인 문정대비(文定大妃)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여 대비의 친정 동생인 소위 소윤(小尹)이란 윤원형(尹元衡)의 세력이 날로 커지면서 반대세력을 모함하여 사화를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1545년(明宗即位初 乙巳) 8월에 일어났으니 전왕의 외숙인 윤임(尹任)을 사사(賜死)하고 윤원로(尹元老)를 해남(海南)에 유배하였다가 뒤에 사사하였으며 유관(柳灌), 유인숙(柳仁淑), 이종열(李仲悅), 이휘(李輝), 나숙(羅叔) 등 1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시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을 이유로 송린수(宋麟壽), 이약수(李若水) 등을 죽이고 권발(權潑), 이언주, 노수신(盧守愼), 유희춘(柳希春), 백인결(白仁傑), 정황 등 30여명을 유배시켜 사림의 선비들이 조정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고자 윤원형(尹元衡)의 독무대를 만들어 20여 년을 농권하였다.

전술한 유현(遊軒), 정황 선생은 우리 고을인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출생으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사인(舍人)의 벼슬에 있었던 촉망되는 사림과 학자로 일찍이 정암 조광조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신 정통파 사림으로서 윤원형의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유배지인 거제도에서 직사하신 존경하는 사림과 학자였다.

뒤에 신원되었으며 영천서원(寧川書院)을 설립하여 배향하였으며 다시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증직(贈職)되었으며 충간공(忠簡公)이란 시호(諡號)가 내려져 별세하신 후에도 유현 선생의 유덕은 후세 사람들의 사표가 되었다. 그 다음에도 1547년(明宗 2년 丁未)의 정미사화(丁未士禍) 1613년(光海君 5년 癸丑)의 계축사화(癸丑士禍) 1689년(肅宗 15년 己巳) 기사사화(己巳士禍) 1721년(景宗 1년 辛丑)에서 다음해인 1722년(景宗 2년 任寅)의 2년간을 통해서 일어난 신임사화(辛壬士禍) 등을 통해서 수백명의 충신들이 죽었으며 수백명의 관료 학자들이 유배되어 귀양살이하는 참극이 벌어

졌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수군 출신의 사림 여러분이 사회에 유배되어 죽었거나 돌아오지 못했으며 운보(雲圃) 오덕겸(吳德謙) 선생도 무안군 지도(智島)에 유배되어 8년간의 귀양살이를 하다 신원되어 풀려났으며 다음에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증직(贈職)되어 귀양살이의 원한은 풀렸으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유배시켜서 그 학문이나 정론을 펴보지 못하게 하는 조선 시대의 사회야말로 유교의 정체를 가져왔으며 드디어는 이씨왕조의 망국의 설움까지 맛보게 되었으니 후세 사람들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당쟁(黨爭)과 사화(士禍)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세월은 가고 1592년(宣祖 25년 壬辰) 4월 13일 일본의 침략군이 부산포(釜山浦)에 상륙하여 부산진첨사(釜山鎭僉使) 정발(鄭發)과 동래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이 전사하고 무방비 상태인 국토를 유린하면서 북으로 진격한 왜군은 5월 2일 한성을 무혈점령하기에 이르렀으며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광(李光)의 근왕군이 수원의 독산성(禿山城)에 이르러 광주목사 권율(權栗), 동북현감(同福縣監) 황진(黃璉), 무장현감(茂長縣監) 최경회(崔慶會) 등 전략에 능한 장군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봉장 이광언(李光彦)을 시켜 용인의 왜적을 치다가 기습을 당하여 괴멸하고 하는 수 없이 전라도로 귀환하였다.

옥천(沃川)의 조헌(趙憲) 선생이 의병을 초모하여 금산(錦山)으로 들어와 전라도를 넘보는 왜적을 막으려 하던 중 공주(公州) 청련사(靑蓮寺)에서 기병한 승려영규(靈圭)가 승병을 이끌고 합류하고 전라도 장흥(長興)에서 거의 한 고경명(高敬命) 선생이 합류하여 금산에서 왜적과 싸웠으나 불행하게도 조헌 선생의 부자, 고경명 선생, 영규스님을 비롯한 700명이 전사순절하는 비극의 참상이었으며 전라감영에서는 금산이 함락됨을 보고 금산에서 전주를 침범하는 경로인 웅치(熊峙)곰치재(熊峙)에 김제군수(金堤郡守) 정감(鄭堪), 나주판관(羅州判官) 이복남(李福男), 의병장 황복을 포진하여 금산에서 용담(龍潭)을 거쳐 침입하는 왜적을 막게 하고 남원 근방으로 탐색전에 나간 동북현감(同福縣監) 황진(黃璉)을 불러 전주 동쪽관문인 안덕원(安德院)을 방어하게 하였다.

1592년(宣祖 25년) 7월 7일 금산에서 용담, 진안을 거쳐 물밀듯이 밀려오는 왜적들이 곰치재 조선군 방어선을 공격하였다. 이 왜적은 소조천용경(小早川隆景)의부장 안국사 혜경(安國寺惠瓊)의 군사들로서 수천명의 용감한 병사를 앞세워 공격하니 중과부적으로 김제군수 정감이 전사하고 방어선

이 무너져 이복남은 후퇴를 거듭하여 전주에서 10 리허에 있는 안덕원(安德院)에서 매복하고 있는 황진장군에게 구출되며 반격을 개시하여 수백명의 왜적의 목을 치고 패줄을 곰치재 너머까지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해남현감(海南縣監) 변응정(邊應井)이 전사하여 조선군의 장수도 두 사람이나 잃었다.

왜장 소조천용경(小早川隆景)의 부장이던 안국사혜경(安國寺惠瓊)은 영동(永同)무주(茂朱)를 거쳐 금산(錦山)에서 군수 권종(權宗)을 죽이고 진산(珍山)을 지나 진산과 완산의 경계에 있는 이치(梨峙 배냉기재)를 넘어 전주에 침입하려는 계획으로 진군을 시작하였다.

안덕원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동북현감 황진은 왜적의 패잔병추격은 나주 판관 이복남에게 맡기고 의병장 황복과 함께 이치의 험난한 요충을 선점하여 목책을 세우고 제반 설비를 서둘러 왜적이 당도하기를 기다렸다.

은봉전서(隱峯全書)의 기록을 보면 「俄而賊又大舉至梨峴 鐵丸如兩聲震天地 諸將皆退緒 公獨與魏大奇孔時億 等若干人 終日力戰 公丸中于脚 猶憤激亂射 賊丈敗而走 伏屍數里許 我軍則無一死傷者 由是湖南得全」

(드디어 적이 대거하여 배냉기재에 이르러 철환이 비오듯하며 그 소리 천지를 흔들더라 제장이 모두다 위축하여 물러났으나 공이 홀로 위대기(魏大奇) 공시억(孔時億)과 더불어 종일토록 힘써 싸우니 공의 다리에 철환이 맞았으나 오히려 분격하여 활을 어지럽게 쏘아대니 적이 대패하여 달아나더라. 적의 시체가 넘어져 있는 것이 수리에 이르렀으며 아군은 사상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전투로 말미암아 호남이 온전함을 얻었노라.)

황진장군이 다리에 총탄을 맞아 부상하였으나 아군은 손해가 최소하게 싸우며 대첩을 거두었다. 양자 전투에서 대승하였음을 상소하여 황진장군은 충청병사(忠淸兵使)에 임명되었으니 육전에서 승리하는 최초의 전투라 할 것이다.

담양부사(潭陽府使)로 전전하였던 장수현감 최경회(崔慶會)가 일부 의병을 이끌고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에 당도하여 의병청(義兵廳)을 설치하고 의병을 초모하였던 바 장수현감 재직시의 덕망과 그의 훌륭한 인품에 신뢰하는 원근의 장정들이 모여들어 5,000명의 대의병군단이 형성되어 월강리 앞 뜰에서 조련하여 무주로 진출하여 지례(知禮)쪽에서 넘어오는 왜적을 요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적의 부장을 한칼로 베이고 노획한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와 공민왕(恭愍王)이 친히 그린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를 빼앗았

으며 그 패잔병을 추격하여 적의 본거지인 지례현(知禮縣)을 수복하고 합천, 산청, 진양 등지로 진출하여 막대한 전과를 올렸다.

당시 경상감사(慶尙監司) 김성일(金誠一)은 선조임금에게 상소하여 「今次晉陽之捷 莫非崔慶會救援之力」(이번 진주의 싸움에서 이김은 최경회가 구원해 준 힘이 아님이 없다)고 썼으니 선조임금은 최경회장군을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임명하여 임지인 진주성에 근무하게 함으로 그의 칙실 주논개(朱論介) 부인이 남편따라 진주성에 가게 됨으로 1593년 6월 29일 진주성이 함락되고 7월 7일 적의 승전연에 참석하여 적의 공성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꺼안고 남강물에 떨어져 순국하였으며 고향인 장수에서 의암사(義巖祠)를 설립하고 부인을 장수삼절로 추앙하여 장수의 상징으로 삼게 되는 연유가 된다.

전 고부군수(古阜郡守)를 지내다가 고향인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의 고택에서 은거중이시며 지금당(知今堂)이란 학당을 만들어 후학양성에 주력하시던 만현(晩軒) 정염 선생은 산서 지사(只砂) 보절(寶節)근방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남원부에 나아가 전 참봉(參奉) 변사정(邊寺貞)의 의병청으로 합류, 변사정 선생을 의병장으로 모시고 만현 정염(丁掄) 선생은 참모로 활약하면서 소백산맥의 준령을 지키며 함양쪽에서 남원으로 넘어오는 왜적을 막아 한놈의 왜적도 전라도를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유재란(丁酉再亂)때 왜적이 남원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거 소백산맥을 넘어 공략함으로 여원치(女院峙)에서 왜적을 막다 전사하였으므로 때마침 보급품을 조달하려고 고향에 와있던 만현 정염 선생은 재차 의병을 모집하여 남원성을 구원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남원성이 함락하여 일만명의 군사가 순절함으로서 남원에 만인의충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때에 장수읍 안양리(安陽里)에 계시던 백응희(白應希) 공은 부친인 전 선전관(宣傳官) 백언학(白彦鶴)공의 도움을 받아 의병을 초모하여 조련하고 장계 월강평에서 의병청을 만들어 조련중인 최경회(崔慶會) 장군과 합류, 도처에서 왜적을 쳐부수고 승리를 이끌어 최경회장군이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가 되어 진주성에 들어갈 때 같이 입성하고 1593년 6월 29일 진주성이 함락될 때 삼장사와 함께 남강에 투신 순사하셨으며, 조정에서는 백응희공의 공로를 인정하여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하시고 등을선무공신(等乙宣武功臣)에 봉하여 녹권을 내리시니 백공의 순절이 장수인의 기개를 보여준 본보기라 할 것이다.

남원성이 함락되어 만명의 조선군이 전사하는 참변을 당할 때 우리 고을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菊圃里)에 살던 시호(詩湖) 정원길(鄭元吉) 선생은 아들 5인과 족제 창문(昌文)과 함께 남원성에 들어가 전라병사(全羅兵使) 이복남(李福男)장군을 도와 싸우다가 순절하였으며 일가에 7인이 순절한 가문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정원길공의 충성을 포양하여 등을선무원종공신(等乙宣武原從功臣)의 녹훈을 주고 충신의 정려를 짓게 하여 후세 사람의 귀감으로 삼았다.

1592년(宣祖 25년) 왜적이 침입하자 전라도에는 왜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음은 관군의 힘이 아니라 순전히 지방에서 꺾기한 의병들의 힘에 의지한 것이며 따라서 지방의 학자들이 후세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어 전쟁 중이면서도 전술한바 산서면 하월리에 지금당(知今堂)이란 학당이 생겨나서 후세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구출하는 경륜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또 하나의 큰 수확이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유천마을에 세운 흥학당(興學堂)이라 할 수 있다.

지방에 사는 11개 가문에서 자제의 교육을 위해서 세웠으나 보편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장수교육의 요람이 되었으며 조선말엽까지 장수교육의 대표적인 학당이요, 전라좌동인맥의 계승자며, 장수의 석학을 배출하는 산실이 되었다.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의 근수루(近水樓)는 전기 흥학당과 쌍벽을 이룬 학당으로 장수 고등 교육기관으로서 명성을 떨쳤으며 장수유학의 근원지가 되었으니 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우리 장수를 산중도방(山中都坊)이란 이름을 붙게 하였을 것이다.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나면서 우리 고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왜적들은 진주, 산청, 안의를 거쳐 육십령(六十嶺)을 넘어 장수로 침입하였으니 우리고장 출신으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의 벼슬을 하다가 낙향하여 고향에 있던 조억령(趙億齡)장군은 가문의 장정과 노복들 200여명을 거느리고 육십령에 진을 치고 왜적과 싸워 많은 수의 왜적을 무찔러서 크게 개가를 올렸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여 후퇴하니 왜적은 무인지경으로 각 마을을 약탈하며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화평(禾坪)마을 양사순(梁思舜)의 집에 들어가 때마침 아침밥을 지으려 부엌에 있는 해주오씨(海州吳氏) 부인의 젓가슴을 만지며 희롱하려 하자 오씨부인은 불호령을 하면서 식칼로 자신의 젓무덤을 베어 내어 왜적에게 던지며 「무지막지한 섬놈의 오랑

캐야. 욕심나는 짓을 줄테니 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시고 출혈로 세상을 떠나니 유림들의 상소로 조정에서 왕자의 친필로 비문을 하사하여 앞뜰에다 비석을 세웠으니 이름하여 수열비(樹烈碑)이며 이 마을은 동명이 바뀌어 수열리(樹烈里)가 되었다. 지금은 앞동산에 수열비각(樹烈碑閣)을 세워서 오씨 부인의 열행을 흠모하고 후세 사람들의 거울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왜적이 장수향교에 들어가 향교를 불사르려 하자 향교의 교북 정경손(丁敬孫)은 생명을 걸고 왜적에 항거하여 오히려 왜적의 존경을 받고 신표(信標)를 써주어 장수향교를 전국에 유일하게 설립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게 수호하여 현재로는 보물로 지정받게 만들었으니 정경손 공의 공덕을 높이 평가하여 삼강록(三綱錄)에 등록케함과 동시에 우리 고장의 상징인 장수삼절(長水三節)로 추앙하여 장수백성의 표상이 되었다.

장수읍을 지나 남원성을 공략하고 각처로 노략질을 나간 왜적은 장수군 산서면 학선리에서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던 비암(秘岩) 박이항(朴以恒) 선생 가족이 피신한 백운산에 올라 선생의 부인 원주원씨(原州元氏)부인이 어린 딸을 업고 수풀 속에 피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희롱하자 부인이 격노하여 준열히 꾸짖었으니 왜적이 마음대로 안됨을 깨닫고 원씨부인과 어린딸을 살해하였는데 같이 피신하던 유림들의 상소로 열녀정문을 지어서 원씨부인의 절개를 포양하였다.

임진왜란 7년간의 혼란을 겪으면서 피폐할대로 피폐한 국정을 바로 잡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1627년(仁祖 5년 丁卯) 1월에 압록강을 건너온 금(金)군은 평양 황주를 차례로 함락시키고 개성에 와서야 도원수 장만(張晩)과 휴전하고 왕족 원창군(原昌君)을 인질(人質)로 하여 철수하였으나 1636년(仁祖 14년 丙子) 12월에 청태조(淸太祖)가 친정군(親征軍)을 이끌고 침범하여 한성이 함락하고 인조임금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기에 이르렀으며 인조임금은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전라감영으로 보내어 근왕병의 의거를 독려하였으니 이때에도 전라도에서는 고을마다 장정들이 일어나 구름같이 의용군이 모여들었는데 만일에 1637년 1월 30일 삼전도(三田渡)에서 인조임금이 청태조에게 항복하지 않았다면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일어서서 나라를 구출하던 전라도 백성들이 청태조의 군대와 일전을 하여 어떠한 결과가 왔을지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하였으리라.

장수에서 출동한 근왕의병들은 1월 20일 여산(礪山)에 집결하여 공주(公州)에까지 진격하였으나 삼전도의 굴복의 소식을 듣고 모두 고향 장수로 되

돌아왔다 이 사건을 이름하여 병자호란(丙子胡亂)이라 부른다.

1678년(肅宗 4년 戊午) 3월 22일 당시의 현감 조종면(趙宗冕)은 통인(通引) 백씨에게 말고삐를 잡히고 감영으로 통하는 북쪽인 천천면 쪽으로 민정 시찰을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천천면 장판리 앞 깎아지른 벼랑이 있는 길을 따라오다가 장척애를 지나던 중 벼랑의 수풀 속에 숨었던 장끼 한마리가 놀라서 푸드득 나르며 우는 바람에 타고 있던 말이 놀라 날뛰면서 벼랑밑 소(沼)에 빠지는 바람에 말과 조종면 현감이 같이 죽었으니 말고삐를 들고 인도하던 통인 백씨가 주인인 현감을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손을 깨물어 피를 흘려서 절벽에 꿩 한 마리와 말 한 마리를 그리고 타루(墮戾) 두자를 쓰고서 자신도 현감이 죽은 소에 빠져 죽었으니 주인에게 바친 충성을 가상하게 여긴 뒤에 장수현감으로 부임한 최수형(崔壽亨)이 비석을 세우고 찬양하였으며 정주석(鄭胄錫)이란 훌륭한 현감이 장수현감으로 부임하여 이름까지 실전한 순의리(殉義吏)와 정경손(丁敬孫) 주논개(朱論介)의 세분을 조정 에 추천하여 조선백성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삼강록(三綱錄)에 기록되게 함으로써 순의리의 충절을 포양하고, 아울러 장수삼절(長水三節)로 추앙하여 장수백성 등의 마음의 표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1863년(哲宗 14년 癸亥) 12월 8일 강화도에서 서민으로 자라다 왕위를 계승하여 14년을 통치하다 돌아가신 강화도령 임금님 철종대왕이 승하하고 후사가 없어 흥선군(興宣君) 이하응의 둘째아들 명복(命福)을 임금으로 모시니 이분이 고종왕(高宗王)이시며 뒤에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고 고종 황제(高宗皇帝)가 되신분 이시니 불과 12살에 왕위에 올라 모든 정사는 아버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총괄하게 되어 개혁의 바람과 쇄국의 바람이 맞물려 혼돈의 세월이 되었으며 그때까지 서원 향사에서 유림들이 작당하여 조정의 치정을 규탄하고 뜻있는 유림들이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반대하는 경향이 보이자 드디어 1861년(高宗 1년 甲子) 8월에 서원의 누습(陋習)을 엄금하는 국령을 반포하여 유림들의 집합논의를 봉쇄하였으며 천주교인을 박해하여 교도를 목베어 죽이고 불란서인 주교를 참형하였으며 동학 교조(東學敎祖) 최제우(崔濟愚)를 참형하여 효수하였으며 1868년(高宗 5년 戊辰) 9월에는 전국의 미사액(未賜額) 서원을 전부 철헐(撤毀)시킴으로써 우리 고장에 있던 서원향사 전부가 허물렸으니 장수는 단 하나의 서원도 남아있지 못했다.

전국에 사액된 서원 48개만이 남아있게 되었으니 당시의 유림으로서는

큰 타격이요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다. 민간인인 유림들은 정재를 모아서 서원향사를 설립하고 조정에서는 혈고 부수는 행사가 되었으니 당시 우리 고을에서 철회된 서원은 다음과 같다.

창계서원(滄溪書院), 압계사(鴨溪祠), 도암사(道巖祠), 용암사(龍岩祠), 월강사(月岡祠), 사동사(社洞祠)이며 광복후 다시 유림들의 정재를 모아 전부가 복원되었으니 도의교육을 위해서도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삼음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정조년대에 우리고을 현감으로 부임한 강고(江皐) 유심춘(柳尋春) 선생께서 장수현 내아에서 쌍둥이 남아를 출생하였는데 그 형이 유후조(柳厚祚)였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내직을 거친 뒤 장수에 낙향하여 여생을 보내는 아버지 강고선생을 효양하기 위하여 헌종조(憲宗朝 8년 壬寅 1842년) 장수현감을 역임하여 부자현감을 한 낙파(洛坡) 유후조(柳厚祚) 선생이 내직 요직을 거쳐 1866년(高宗 3년 丙寅) 1월에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올라서 정승이 됨으로써 이조년간에 우리 장수군에서는 두 분의 정승을 배출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으니 당시에는 장수 사람이라면 무서워하고 존경하며 정승고을이란 별명까지도 얻었었다, 장수향교의 향안(鄕案)에는 지금도 유후조(柳厚祚) 선생이 어릴때 유림으로 등록돼 본안이 남아 있다.

낙파(洛坡) 유후조(柳厚祚) 선생은 유씨의 고향인 풍산현(豐山縣 현 安東郡 豐山面)의 유림으로 행세하지 않았으며 장수향교의 향안에 유적(儒籍)을 두고서 과거를 보면서도 장수향교의 향안을 제출하여 장수유림으로 행세하였음이 밝혀져서 낙파상공의 후덕한 인품을 알 수 있으며 그 성질이 흡사 방촌 황희상공을 닮았다고 하여 소방촌(小龐村)이란 별명까지 붙어 있으니 낙파상공의 후덕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의 벽이 무너지고 한반도는 국제열국의 각축장이 되었으나 신흥일본의 악착같은 침략근성의 발로에 못 견디는 형편이 되어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청나라가 패하고 러일전쟁(露日戰爭)에서 또다시 러시아가 패하여 동양에서는 일본을 견제할 강국이 없어짐에 따라 일본은 대군을 조선에 주둔시켜 위력으로 조선왕조를 굴복시켜 1905년(大韓 9년 乙巳)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국권의 일부를 빼앗고서 조선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통치를 시작하였으며 1910년(純宗 4년 庚戌) 8월 22일 경술국치를 체결하여 조선에 총독부(總督府)를 두어 식민지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大韓 10년 丙午) 전라도 순창(淳昌)에서는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선생과 전 낙안군수(樂安郡守) 임병찬(林炳贊) 선생이 제후하여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다.

면암선생과 제자 10인이 체포되어 일본 대마도까지 끌려가 면암선생께서는 「왜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하시고 굶어서 죽으셔서 시신으로 고국에 돌아오셨다.

역시 순창거의에 참여하신 해산(海山) 전기홍(全基泓)장군은 유림학자들의 의병활동이 무력함을 깨달아 자력으로 의병을 모집 대동창의단(大東倡義團)과 호남동의단(湖南同義團) 10진을 편성하여 전라남북도를 전전하면서 왜적과 싸워서 대동의병대장(大東義兵大將)이란 칭호로서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왜헌병에게 체포되어 광주, 대구의 법원에서 재판으로 사형이 확정되어 1910년 4월 1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해산장군은 변암면 대론리 원촌마을에서 성장하신 분이며 현재도 해산장군의 고택이 남아 있으며 장군의 유택은원촌마을 건너편 양지 바른 언덕에 부인과 쌍분으로 모셔져 있다.

덕유산(德裕山) 토옥동(土玉洞)하면 명산이며 산세가 수려하여 유명한 것보다 항일투쟁의 근거지로서 더욱 유명하다. 이 첩첩한 골짜기를 근거로 호남의병대장(湖南義兵大將) 문태서(文泰瑞)장군과 그 뒤를 이어 호남의병장이 되신 박춘실(朴春實)장군의 두 분의 의병대장이 활동하셨으므로 토옥동은 유명한 곳이다.

한때, 의병활동의 전성기는 장수헌병대를 전소시키고 헌병전원을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렸으며 경부선 이원역(伊院驛)을 습격하여 철도를 마비시키는 전과를 올렸으나 문태서장군은 1912년에 왜적에게 체포당하여 1913년 2월 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순절하시고 박춘실장군은 1913년 왜적에게 체포당하여 대구형무소에 이첩되어 재판 중이었으나 1914년 6월 3일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본인이 자결함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위 세분의 의병대장은 모두 건국공로훈장 복장이 추서되어 그 공로를 포상 받았다. 문태서, 박춘실 두 장군은 국립묘지 국가유공자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1919년(日帝時己未) 3월 1일 한성부인사동(漢城府仁寺洞) 명월관(明月館)에서는 한국민족대표(韓國民族代表)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발표하고 왜정에게 체포당하여 왜적에게 재판을 받은 대표 중에

는 장수군 변암면 죽림리에서 출생하신 당대의 선승(禪僧)이신 백용성(白龍城) 조사가 계셨으며 1년 6월의 징역살이를 하시고 출감하여 불교증흥에 노력하시고 후세국민에게 독립애국정신을 일깨워 주시다 1940년 2월 24일 입적하시니 해인사 서쪽 골짜기에 사리탑을 세우고 탑비를 만들어 선사의 공로를 찬양하고 옆에 용성대선사사리탑선원(龍城大禪師舍利塔禪院)을 세우고 조사의 성불을 축원하고 있다.

조사계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어 조사의 공로를 포양하였다. 장수에서는 용성선사 생가터에 죽림정사를 세워 선사의 불교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